

2018학년도 수능특강 실전학습 2회 문제지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대의원 회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학교에서는 그동안 방치되었던 창고를 고쳐 학생들의 공간을 만들고, 전교 학생회에 그 공간의 활용 방식을 일임했습니다. 지난번 학생 대의원 회의에서 활용 방식을 논의했으나 학생 휴게실로 활용하자는 주장과 동아리실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간의 활용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 회의를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양측의 대표자들에 의해 주장과 반대 신문의 절차를 거친 후, 배심원들의 평결에 의해 공간의 활용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의 대표자들은 사전에 정한 규칙을 지켜 주시고, 배심원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학생 휴게실로 활용하자는 측에서 주장을 하신 후 동아리실로 활용하자는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휴게실로 활용 측: 이번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마련해 준 공간은 전체 학생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교 학생 상당수가 학교에 휴게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복지 시설로 정수기, 탁구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은 없습니다. 전체 학생이 이용할 만한 복지 시설로 휴게실만 한 것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학생 휴게실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동아리실로 활용 측: 물론 휴게실이 마련되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금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의 출처는 어딘가요? 또한 상당수의 학생이 휴게실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전교생 중에 휴게실을 원하는 학생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된다는 말씀인가요?

휴게실로 활용 측: 지난주에 복지 상담부에서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로, 조사 대상자의 67%가 학생 휴게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동아리실로 활용 측: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전교생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 아닌가요?

휴게실로 활용 측: 이미 학교 환경에 젖어 있어 문제의식이 덜한 선배들에 비해 신입생들은 우리 학교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학년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휴게실로 활용하자는 측에서는 다수의 학생이 휴게실을 희망한다는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학생의 복지를 위해 휴게실로 만들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리실로 활용하자는 측에서 주장을 하신 후 휴게실로 활용하자는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동아리실로 활용 측: 물론, 휴게실이 학생들을 위한 복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압니다. 하지만 동아리실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이번에 양보의 미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형편을 보면 동아리실이 있는 동아리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아리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방금 휴게실로 활용하자고 소리 높여 주장을 하신 분도 동아리실이 없는 상태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양된 목소리로) 지금 동아리 부원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심하네요.

사회자: 잠깐만요.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해

칠 수 있으니, 지나치게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실로 활용 측: 아, 예. 제가 좀 흥분했나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 탐구반, 독서 토론반, 비즈 공예반 등을 비롯해 8개의 동아리가 동아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아리들은 공통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동아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기 초에 동아리 단장들 연석회의 때, 이들 동아리 단장이 이구동성으로 동아리실이 없어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찼겠는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이들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합 동아리실을 만들어 동아리 활동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휴게실로 활용 측: 동아리실이 없는 동아리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아리들은 단순히 한 학기에 17시간만 실시되는 동아리 활동 시간에 모일 공간이 필요한 것이라 평소에는 동아리실이 필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동아리실이 없는 동아리들이 있다고 동아리실을 만든다면 그것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동아리실로 활용하자는 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 위 대의원 회의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참가자의 발언을 요약하여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 ③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 ④ 회의에 임하는 참가자와 배심원들의 자세에 대해 당부하고 있다.
- ⑤ 발언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참가자에게 논점을 다시 알려 주고 있다.

2. 다음은 ‘동아리실로 활용 측’이 대의원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구상한 계획이다. 대의원 회의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 ㄱ. 예상되는 상대측의 반박을 제시하여 우리 측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야겠어.
- ㄴ. 동아리실이 없는 동아리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해야겠어.
- ㄷ. 동아리실이 없는 동아리 단장들의 고충을 들었던 경험을 소개해 배심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겠어.
- ㄹ. 혹시 실수를 하게 되면 바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 실수로 인한 악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어.
- ㅁ. 상대측의 합리적인 주장을 무조건 반박하기보다는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 배심원들의 호감을 유발해야겠어.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3. 다음은 배심원들이 작성한 평가표의 일부이다. 평가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가자	평가 기준	평가 결과	
		예	아니오
휴게실로 활용 측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가?		✓

- ① ‘휴게실로 활용 측’이 학생들의 사기가 오를 것이라고 거론한 것이 배심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겠군.
- ② ‘동아리실로 활용 측’이 반대 신문에서 조사 자료의 대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설득력을 얻었겠군.
- ③ ‘휴게실로 활용 측’이 제시한 자료의 출처가 배심원들의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역할을 하였겠군.
- ④ ‘동아리실로 활용 측’이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동아리실이 없기 때문이란 점을 부각한 것에 영향을 받았겠군.
- ⑤ ‘휴게실로 활용 측’이 동아리실이 없는 동아리들은 동아리 활동 시간에만 모일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 배심원들의 반감을 샀겠군.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얼마 전에 저는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의대 다니는 형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형은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린 것 아니냐고 말하더군요. 여러분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친구들의 반응을 살펴본 후)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때 처음 듣는 용어였기에 형에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형은 바쁜 일이 있어 지금 나가야 한다며, 다음에 말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그 정보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 발표 주제로 삼았습니다.

(손가락뼈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에 뼈가 참 많죠? 사람은 모두 206개의 뼈가 있는데, 그중 25%의 뼈가 양쪽 손에 있습니다. 뼈가 많다 보니 뼈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힘줄과 인대들도 그만큼 많이 존재하는데, 이 힘줄과 인대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염증이 생기거나 붓게 되고, 그럴 경우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끝으로 가는 신경이 손목에서 눌려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손목에는 약 3cm 길이의 ‘수근관’이라는 통로가 있는데, 그 속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인대들과 손가락이나 손바닥의 감각을 담당하는 ‘정중 신경’이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거나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면 인대가 두꺼워지는데, 이 때문에 수근관이 좁아지면서 정중 신경을 압박해 손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은 흔히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의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상은 주로 손가락이 저리거나 아프고 감각이 무뎠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엄지손가락에 힘이 없어지면서 엄지와 손목 사이의 두툼한 근육이 위축돼 살이 빠진 듯 보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글씨를 쓰거나 전화를 받는 것은 물론, 수저질이나 단추 잠그기 등의 섬세한 동작을 못해 기본적인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받게 되기도 하고, 손가락이 영구적으로 마비될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청중의 목소리를 확인한 후)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인터넷의 여러

블로그와 카페에 실린 정보를 살살이 뒤져 정확하게 알아 왔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처음에는 손가락 끝만 저리지만 점차 진행되면서 손바닥, 팔까지 저리게 됩니다. 그런데 새끼손가락은 저리지 않는데, 새끼손가락에는 정중 신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로 엄지, 검지, 중지가 저리거나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이 잘 맞닿지 않으면 이 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볼펜 등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낀다거나 저릿저릿한 느낌이 손가락에 있어 깜짝 놀라거나 해도 이 병에 걸린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잘 때 손이 저리고 통증이 심해 깨거나, 손을 주무르고 털어 주면 통증이 가라앉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제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네, 모두 잘 이해하신 것 같네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쉬면 나아지겠지, 파스 붙이면 낫겠지 하며 방치하다가 더 심한 신경 손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빠른 치료가 중요하니, 질환이 의심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손목에 무리가 갈 정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다음의 학생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은?

- 도입
-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 제시
 - 청중의 특성과 관련지어 주제의 필요성 제시 ㉠
- 전개
-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개념 제시
 -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 및 위험성 제시 ㉡
 - 손목 터널 증후군의 자가 진단법 제시 ㉢
 -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치료 방법 제시 ㉣
- 정리
- 청중의 이해도 점검
 - 청중에 대한 당부의 말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들이 한 생각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전략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학생 1: 나도 며칠 전부터 손가락이 저리더니 오늘은 필통을 잡으려고 할 때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는데, 혹시 나도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린 것은 아닐까?
- 학생 2: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것 같군.
- 학생 3: 발표를 할 때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
- 학생 4: 블로그와 카페에 실린 정보가 틀린 것도 많은데, 발표 내용을 믿어도 되는 걸까?
- 학생 5: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병하면 병원에서 어떤 진료과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 줬으면 좋았을 텐데…….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의 준비 상황을 추리하며 들었다.
- ③ ‘학생 3’은 매체 자료의 효과를 평가하며 들었다.
- ④ ‘학생 4’는 발표의 출처와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들었다.
- ⑤ ‘학생 5’는 발표에 제시된 의견의 공정성을 판단하며 들었다.

8. 다음 ‘작문 계획’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작문 계획】

□ 처음

- ○○ 벼룩시장에 대한 조사 동기 ①

□ 중간

- 조사 내용 및 방법
- ○○ 벼룩시장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 ②
- ○○ 벼룩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성찰의 기회 ③
- ○○ 벼룩시장이 지니는 치유적 가치 ④

□ 끝

- 추억과 휴식의 공간인 ○○ 벼룩시장 ⑤

9.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애들한테 최신 스마트폰 사용법을 묻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애들이 어릴 때, 한글과 구구단을 가르쳐 주며 느꼈던 부모로서의 자존감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벼룩시장에 오면 다 내가 젊었을 때 잘 쓰던 거잖아요. 저걸 한창 쓸 때를 회상하면 마치 내가 두려운 게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 벼룩시장을 방문한 50대 □□□ 씨

- ① 급격하게 변해 가는 사회의 모습에 적응하기 힘든 와중에, ○○ 벼룩시장의 물건들은 옛것에 대한 추억을 통해 현재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해 주었다.
②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데, ○○ 벼룩시장의 옛 물건들에 향수를 느끼며 심취해서 그 시절의 모습에서 현재의 현실로 돌아오기를 꺼려하는 것이었다.
③ 급격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문화 지체 현상을 통해 인간 소외를 초래하는데, ○○ 벼룩시장의 물건들은 그러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시사해 주는 것이었다.
④ 가정에서 가부장적 권위를 잃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 벼룩시장에 오는 사람들끼리 느끼는 옛것에 대한 공감을 통해 다시 한번 그와 같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⑤ 그들은 예전 수준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와중에, ○○ 벼룩시장의 익숙한 물건들을 보고 자신이 중심 역할을 했던 때를 떠올리며 잠시나마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10. ‘학생의 초고’를 바르게 고쳐 쓰는 활동 중에 제기된,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간주할’로 고치는 게 낫겠어.
② ㉡: 피동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진행되었다’로 고쳐야 해.
③ ㉢: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니까 삭제하는 게 낫겠어.
④ ㉣: 문맥이 어색하지 않도록 바로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게 좋겠어.
⑤ ㉤: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리고’로 고치는 게 좋겠어.

11. <보기>를 참조할 때 밑줄 친 말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보 기>—

【표준 발음법】

제23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ㄸ, ㅌ, ㄴ,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ㄴ,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ㄴ,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5항 어간 받침 ‘ㄷ,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ㄴ,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ㄴ,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ㄴ,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① 형은 가방을 내게 맡기고 식당으로 달려갔다.
② 나는 친구가 말을 더듬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③ 그는 여덟도 아닌 일곱이 되던 해에 천자문을 읽었다.
④ 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일시에 뛰어나갔다.
⑤ 형은 그만둘지언정 그 일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했다.

1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물다¹ ㉠ 윗니나 아랫니 또는 양 입술 사이에 끼운 상태로 떨어지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소 세게 누르다.

㉡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운 상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누르다.

물다² ㉢ 갇아야 할 것을 치르다.

무르다 ㉣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다.

㉤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다.

물리다	‘물다 ¹ ㉠’의 사동사	㉦
	‘물다 ¹ ㉡’의 피동사	㉧
	‘물다 ² ㉢’의 사동사	㉨
	‘무르다 ㉣’의 사동사	㉩
	‘무르다 ㉤’의 사동사	㉪

- ① ㉦: 그녀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고 수유실을 찾았다.
② ㉧: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다.
③ ㉨: 정부는 규약을 위반한 업체들에 과징금을 물렸다.
④ ㉩: 동생은 어제 구입한 책들을 모두 물리고 왔다.
⑤ ㉪: 회의 날짜를 사흘 뒤로 물리자는 전화가 왔다.

13. <보기>를 참조할 때, 밑줄 친 말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 국어의 명사 중에는 뒤따르는 조사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는 ‘나무’로만 나타나는 명사가 중세 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합 환경에 따라 ‘나모’와 ‘냘’으로 달리 나타난다.

조사 결합 환경	명사의 형태 변화	
조사 결합 없이 단독형으로 쓰일 때나 조사 ‘와’와 결합할 때	■ ‘나모’로 실현된다.	
	㉠ 나모 아래 안자	나무 아래 앉아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 ‘나모’로 실현된다.	
	㉡ 나모도 盛(성) 헝더니	나무도 우거지더니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 ‘냘’으로 실현된다.	
	㉢ 불휘 기픈 남곤 (냘+은)	뿌리 깊은 나무는

	중세 국어	현대어 풀이
①	냘기(냘+이) 높고도	나무가 높고도
②	나모와(나모+와) 피과 내과	나무와 산과 내와
③	문득 냘글(냘+을) 안고 우니	문득 나무를 안고 우니
④	나모익(나모+익) 새 냘 나니이다	나무에 새잎이 난 것입니다.
⑤	나모마다(나모+마다) 꽃답도다	나무마다 꽃답구나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태소는 의미를 지니는 최소의 문법 단위이다. 이때, 의미를 지닌다는 말은 어휘적 의미나 문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뜻으로, 가령 ‘꽃이 피었다’의 ‘꽃, 피-’처럼 어휘적 의미를 지닌 것을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라고 하고, ‘이, -었-, -다’처럼 문법적 의미를 지닌 것을 ‘형식 형태소(문법 형태소)’라고 한다.

그런데 형식 형태소 중에는 문법적 의미뿐 아니라 어휘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 형태소들도 있다. 예를 들어, ‘군말, 군살’ 등에 쓰이는 파생 접사 ‘군-’은 ‘쓸데없는’ 정도의 뜻을 지녀 어휘적인 성격도 있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로 분류한다. 또한 파생 접미사라고 하더라도 ‘높이, 같이’에서의 ‘-이’는 문법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는 반면에 ‘명예롭다’의 ‘-롭-’이나 ‘잡히다’의 ‘-히-’ 같은 말들은 일정 정도 어휘적인 의미도 지닌다. 즉, ‘-롭-’은 ‘그려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히-’는 피동의 뜻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학교 문법에서는 형식 형태소로 취급한다. 마찬가지로 ‘조차, 까지’ 등의 보조사들 역시 다소간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더라도 학교 문법에서는 격 조사와 함께 형식 형태소에 포함시킨다. 이런 말들을 분류하기 위해 별도의 형태소 유형을 만드는 일은 오히려 형태소의 체계를 복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와 같이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과 파생 접사와 같이 단어를 파생하는 기능을 ‘문법적 의미’라는 표현에 포함하여 조사와 파생 접사를 형식 형태소로 분류한다.

한편, 형태소는 자립성 여부에 따라 ‘책, 오늘’처럼 단독으로 쓰이는 ‘자립 형태소’와 ‘읽-, -어라’처럼 의존적으로 쓰이는 ‘의존 형태소’로도 나누는데 후자에는 붙임표(-)를 붙인다. 단,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단어로 보아 붙임표 없이 쓴다.

그런데 ㉡형태소들 중에는 다른 형태소와의 결합에 제약이 아주 심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오솔길’의 ‘길’은 ‘논길, 눈길, 뱃길, 갯길’ 등에 서처럼 다양한 형태소들과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오솔-’은 ‘길’과만 결합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된 곳’이라는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인 ‘-막’ 역시 ‘오르막, 내리막’ 정도로만 쓰일 수 있다.

14. 윗글의 관점에서 ㉠~㉣에 쓰인 형태소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우리는 그를 정답게 맞이했다.

㉡ 우리 비밀은 너만 알고 있어라.

㉢ 형은 자세를 낮추어 공을 받았다.

㉣ 그녀는 지우개로 글씨를 모두 지웠다.

㉤ 그들은 결심을 한 듯 손을 굳세게 마주 잡았다.

- ㉠의 ‘-답-’은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지니지만 형식 형태소로 분류된다.
- ㉡의 ‘만’은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며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로 분류된다.
- ㉢의 ‘-추-’는 ‘낮다’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로 분류된다.
- ㉣의 ‘-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지니지만 형식 형태소로 분류된다.
- ㉤의 ‘굳-’은 ‘세다’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로 분류된다.

15. <보기>의 ㉠~㉣ 중에서 윗글의 ㉡에 해당하는 것끼리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
- 상처가 난 데서 검붉은 피가 흘렀다.
㉡
- 그곳의 경치는 아름답기로 소문났다.
㉢
- 그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
- 그녀는 군인이신 아버지를 늘 자랑스럽게 여겼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효성이 지극한 안평국 왕자 적성이는 모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영주를 얻기 위해 서천으로 떠난다. 성의는 일영주를 구해 돌아오던 길에 형인 항의에게 일영주를 빼앗기고, 칼에 찔려 장님이 되지만 무사 태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다. 성의는 섬에 표류하였다가 구출되어 천자를 만나고 공주의 벗이 된다. 어느 날 모후가 기러기를 통해 보내온 편지 내용을 듣다가 눈을 뜨게 된 성의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공주와 결혼하여 천자의 부마가 된다. 공주와 함께 안평국으로 향하는 성의는 기러기를 통해 모후에게 미리 서간을 보낸다. 항의는 서간을 보낸 이가 동생 성의인 것을 알고 자신의 죄가 탄로 날까 염려해 계책을 꾸민다.

이날 항의가 적부리를 청하여 후히 대접하고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위하여 오백 군사를 거느리고 중로에 나가 매복하였다가 성의 일행을 쳐서 함몰시키고 돌아오면 천금의 상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장차 왕이 되는 날 무거운 소임을 맡길 것이니 그대는 힘을 다하여 성사케 하라.” / 하니 적부리가 크게 기뻐 말하기를,
 “이 일은 소장의 손끝에 달렸으니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동궁께서는 다만 후일을 준비하소서.”

하며 하직하니 항의가 크게 기뻐하여 잔을 잡아 술을 권하며 즐기다가 잔치를 마치고 비밀리에 의논하더니 적부리가 돌아와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하더라.

이때 부마는 배를 재촉하여 청강에 다다르니 갑자기 중천에 기러기가 슬피 울며 떠오더니 뱃머리에 앉았다. 부마와 공주가 크게 반겨 몸을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 “네 능히 서간을 전하였느냐?” 하니 기러기가 고개를 들어 답하니 일행이 모두 신기하게 여기며 칭찬하더라. 기러기가 문득 날아 강변으로 떠다니며 슬피 울거늘 부마와 공주 및 모든 사람이 의심하니 공주가 말하기를,

“이제 기러기가 비록 짐승이지만 신통함이 있으니 무슨 변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불길한 정조이니 대비합시다.”

하고 데려온 장수와 군사를 단속하고 또 행장을 끌러 갑주와 창검을 내어 공주가 친히 화복(華服)을 벗고 의갑(衣甲)을 갖추어 뱃머리에 서며,
 “부마는 배 안으로 드십시오.” / 하였다. 부마가 말하기를,
 “약하디 약한 공주가 무슨 지혜로 이렇듯 하십니까?” / 공주가 말하기를,

“분명 앞으로 불의의 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행을 보호하는 장수들로써 막지 못하면 첩이 반드시 대적하려 하오니 부마는 너무 우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곧바로 나아갔다. 강변에 다다름에 본국의 예관이 후대하여 맞으니 위의를 거룩하였다. 이때 한 줄기 대포 놓는 소리가 나며 한 떼의 군마가 내달아 길을 막으니 이 장수가 곧 적부리라. 머리에는 황금 투구를 쓰고 몸에는 보신갑을 입었으며, 손에는 긴 창을 들고 천리 준마 위에 높이 앉아,

“너희는 어떠한 도적이길래 무슨 뜻을 품고 감히 우리나라 땅을 범하느냐?”

하고 큰 소리 치며 달려드니 본국 예관(禮官)이며 부마 일행이 놀라 당황하였다. 본국 사신이 꾸짖어 말하기를,

“내 왕명을 받아 부마와 공주를 모시러 왔는데 어찌 범람(汜濫)한 뜻을 품고 이같이 항거하느냐?”

하니 들은 체도 아니 하고 큰 소리로 꾸짖어 말하기를,
 “도적은 빨리 나와 죽기를 대령하라.” / 하니 위엄이 범 같았다. 공주가 생각하기를, ‘이는 반드시 부마 형공의 흉계로다.’ 하고 수하에 데리고 온 장수에게 명령하여 대적하라 하였다. 명령이 떨어지자 긴 창을 비껴 들고 나는 듯이 말에 올라타고 크게 외쳐 말하기를,

“무지한 필부는 들으라. 나는 중국 황제의 군사이다. 부마는 너희 나라 왕자요, 마마는 우리 황실 공주이시다. 부마께서 친행하고자 하시기에 황제께서 허락하여 나로 하여금 ‘보호하라’ 명하시어 이에 이르렀거늘 너는 무도불측한 세자와 동심(同心)하여 이같이 외람되이 범하니 천도가 어찌 무심하겠는가.”

하였다. 적부리가 듣고도 못 들은 체하며 달려들거늘, 맞아 싸워 십여합이 되어도 승부를 가릴 수가 없더니, 문득 적부리가 칼을 날려 황사(皇師)를 치니 황사가 몸을 날려 칼을 피하였다. 이에 적부리가 승기를 타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드니 형세가 매우 급했다. 이때 기러기가 강변에 울면서 내왕하더니, 물에 몸을 적서 모래를 날개에 가득 묻히고 공중에 떴다가 쏜살같이 내려와 적부리의 얼굴에 뿌리니, 제 아무리 명장인들 눈을 뜨지 못하는데 어찌 대적하겠는가? 말을 달려 본진으로 돌아가니 황제의 군사가 겨우 돌아왔다. 공주가 말하기를,

“만일 기러기가 아니었더라면 위태할 뻔했다. 그대의 창법을 보니 적장을 대적치 못할 것이다.”

하며 분기탱천하여 스스로 출전하려 했다. 부마가 만류하며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골육상쟁이로다. 공주는 안심하소서. 내 나아가 당적하오리다.”

하니, 공주 대답하기를,

“부마는 지식이 넉넉하오나 무예를 익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어찌 검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첩은 어렸을 때부터 무기를 좋아하여 말달리기와 창 쓰기를 연습하였습니다. 지금 적장의 용맹을 보니 당대의 명장이지만 죽히 두렵지 아니하오니 조금도 염려치 마옵소서.”

하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창을 들고 몸을 날려 말에 올라 창을 번득이며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위로는 왕을 기만하고 음흉한 뜻을 두어 무도한 행실을 가지고 중로에 와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구나. 그러나 하늘의 도우심이 있고 또한 네가 중간에 해칠 줄 이미 알고 장졸을 거느리고 왔는데 네 감히 항거하니 어찌 분하지 않겠느냐. 빨리 나와 죽기를 재촉하라.”

하니 그 소리가 옥반에 진주 구르듯 하였다. 적부리가 정신을 진정하여 살펴보니 한 소녀가 말을 타고 진전에 횡행함이 제비 같은지라. 적부리가 분을 참지 못하여 달려들어 칠십여 차례가 되도록 승부를 결정지을 수 없었는데, 기러기가 또 날개에 모래를 묻혀 적부리의 얼굴에 뿌려 두 눈에 모래가 들어가 눈을 뜨지 못할 때에 공주의 칼이 번뜩하더니 적부리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

<중략>

공주가 칼을 들어 적부리의 군사를 치고자 하다가 문득 깨닫고 ‘적부리의 군사는 곧 부마국 백성이다.’ 하고 일제히 호령하여 세우고 큰 소리로 깨우쳐 돌려보내니, 군사들이 물러 나와 공주의 은덕을 송덕하며 만세를 불렀다. 군사 한 사람이 아뢰기를,

“망발스런 모습이 되었사오니 소졸들이 전배(前陪)함을 바라나이다.”

하거늘 공주가 허락하여 앞세우고 황성 일행은 뒤를 따라 일행과 인마를 거느리고 도성으로 들어가니거리마다 송덕하며 만민이 모두 천만세를 부르며 남녀노소 없이 다투어 구경하더라.

이때 항의가 적부리 형제에게 약속하여 보내고 소식을 탐지하더니 적부리 형제가 공주의 칼 아래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기를 참지 못하여 말하기를,

“내 적부리를 수족같이 여겼는데 부리 형제가 여자의 칼끝에 영혼이 되었으니 장차 나의 일을 어찌하겠는가. 반드시 성의를 죽여 후환을 덜리라.” / 하고 나오더라.

문득 뒤에서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내달아 꾸짖어 말하기를,

“나는 당시에 배를 타고 중로에 마중 나갔던 태연이다. 인륜을 모르는 항의는 들어라. 네가 전일바다에서 어진 대군을 죽이려 하거늘 만류했더니, 칼로 대군의 두 눈을 찔러 모난 판자 쪽에 태워 바닷속에 밀쳤으니 이는 사람의 할 바가 아니다. 천도(天道)가 명감(明鑑)하여 상한 눈을 다시 뜨고, 영화롭고 귀하게 되어 고국에 돌아오니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네 홀로 포악하여 윤기를 모르고 골육을 굳이 해치고자 하니 무슨 원수로 그러느냐?”

[A] 하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칼을 들어 항의의 목을 치니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지라. 이때 보는 자 그 누가 상쾌하게 여기지 않으리오? 보고 듣는 사람이 모두 태연을 의로운 남자라고 칭찬하더라. 그러나 태연이 말하기를,

“내 이제 항의를 죽여 장부의 답답함을 덜었으나 왕자를 죽였으니 나도 죽는 것이 옳도다.”

— 하고 자결하니 이는 뒷사람을 경계함일터라.

이때 공주의 행차가 궐문에 이르러 황제의 군사는 별궁으로 들어가고 공주와 부마는 내궁으로 들어가 전하 내외분께 엎드려 배알하였다. 중전이 일회일비하여 공주와 대군의 손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기

를, / “공주는 나의 자부로다.”

하시며 대군의 전후수말을 대강 들으시고 이번에 나오다가 변란 만난 사연을 문답하시고 탄식하기를 마지 아니하시거늘 공주와 부마가 만단으로 위로하시더라. / 이때 본국 사신이 왕상께 들어가 아뢰기를,

“무장 태연이 중도에서 세자를 베고 저도 또한 죽었나이다.” / 하니, 상이 다 듣고 말씀하시기를,

“태연이 한편으로는 절(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역(逆)이로다. 제가 세자를 죽였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그러나 세자는 대군의 예로 안장하라.”

하시고 궐내에 큰 잔치를 배설하고 황사를 대접하고 즐기니 삼공육경 등 만조제신(滿朝諸臣)이 일시에 하례하며 만세 하였다.

- 작자 미상, 「적성의전」 -

16.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향의는 성의가 돌아오는 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 ② 황사는 부당한 일을 한다면서 적부리를 꾸짖고 있다.
- ③ 공주는 성의보다 자신이 무예에 능하다고 보고 있다.
- ④ 중전은 무사히 돌아온 성의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 ⑤ 왕은 비명횡사한 세자의 소식에도 개의치 않고 있다.

17. ‘기러기’의 작중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의의 소식을 다른 이에게 전달한다.
- ② 성의가 쓴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게 한다.
- ③ 위기에 처한 황사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다.
- ④ 공주의 편에서 공주가 적을 제거할 수 있게 한다.
- ⑤ 성의 일행이 앞으로 닥칠 일을 대비할 수 있게 한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적성의전」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형 향의와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동생 성의 사이의 갈등을 왕위 계승 서사의 틀에서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왕위 계승은 장자 상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성의는 왕위 계승 순위에서 향의에 밀린다. 따라서 성의가 왕위를 계승할 만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덕을 펼쳐 보여야 한다. 성의는 일영주를 구하는 모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중국에서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인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귀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난관을 주변 인물들의 도움으로 극복해 나가며 덕을 펼쳐 보이면서 왕위를 계승할 만한 고귀한 인물임을 증명해 보인다.

- ① 서간을 보낸 이가 성의임을 알게 된 향의가 성의를 제거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어 성의의 귀환 과정이 순탄치 않겠군.
- ② 공주는 변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여 성의의 귀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군.
- ③ 적부리는 성의 일행을 맞이하는 본국 예관과 달리 그들을 도적으로 취급해 향의와 경쟁관계에 있는 성의의 귀환을 방해하는군.
- ④ 공주는 성의를 대신하여 적부리를 제거하였으나 적부리의 군사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성의를 대리하여 그의 덕을 널리 퍼뜨리는군.
- ⑤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측했던 향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여 나라의 근심거리를 없앴으로써 성의는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을 고귀한 인물임을 증명하는군.

19. [A]의 ‘태연’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의 앞날은 예측하기 어렵다더니 새옹지마(塞翁之馬)로군.
- ②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더니 자승자박(自繩自縛)인 셈이군.
- ③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달리하다니 임기응변(臨機應變)에 능하군.
- ④ 기회를 놓치고 안타까워한다더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을 하고 있군.
- ⑤ 큰일을 이루고 자신을 희생하다니 살신성인(殺身成仁)이 따로 없군.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강하원)’는 국립 도서관을 찾았다가, 불법 채류자의 신분으로 자신과 같은 ‘강하원’이라는 이름을 한 채 외국에서 아사(餓死)한 여성인 김희진의 부고 기사를 보고 과거를 떠올린다. 이모의 돈을 훔쳐 고향을 도망쳐 나와 대학에 등록한 ‘나’는 하루하루를 먹고살기 위해 학기가 지난 책을 팔아서 연명하고 있었다. 청계천의 헌책방에서 자신의 책을 산다는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된 ‘안’은 ‘나’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가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일하도록 해 준다. 인쇄소를 찾던 어느 날 밤, ‘나’는 ‘안’이 지하 조직의 멤버임을 알게 되고, ‘안’은 ‘나’에게 인쇄소 일 대신에 지하 조직의 일을 맡게 한다. ‘나’는 스스로 지하 조직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안’의 일을 돕는다. 지하 조직의 활동이 발각되어 경찰에 쫓기게 된 ‘안’은 ‘나’에게 조직의 핵심 멤버인 김희진을 외국으로 도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김희진은 내 방에서 약 이십 일을 머물렀다. 그사이 그녀는 서서히 회복되어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무엇인지 일에 열중하기도 했다. 시간여유가 생길 때 나는 그 옆에서 논문들을 되살려 내는 일을 계속했다.

어느 날 밤, 방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나는 잠이 깼다. 책상 위는 서류와 폐지로 산란스러웠고 방 안은 비어 있었다. 방문을 열자 행주를 들고 찬장이며 부뚜막을 열심히 닦고 있는 김희진의 모습이 보였다. 정말 동생 집을 방문해 집을 치워 주면서 정을 표현하는 여느 사촌 언니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김희진은 부엌을 바닥까지 말끔하게 닦아 놓은 다음이었다. 나의 기척에 그녀는 몰래 하던 일을 들킨 사람처럼 나를 보고 소리를 죽여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불안기가 서려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다 잘될 테니까.”

그때쯤 그녀는 웬만큼 건강해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여행을 준비하며 그녀가 기거하는 내 방에 안이한 번쯤 들러 줄 것을 막연하게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그가 처한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김희진은 서서히 기운을 회복했고 결국 안을 보지 못한 채로, 그리고 시골에 있다는 가족에게 감히 연락을 취하지도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 갔다. 내 방을, 서울을, 이 나라를 떠나는 날 그녀는 내게 예닐곱 장의 전달할 편지와 가방 가득히 무언가를 남겼다.

“하원 씨가 보관해 주세요. 보잘것없는 글들인데, 때가 되면 빛을 보게 되겠지요. 곧 다시 만나요. 곧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요.”

그녀는 위조된 여권과 내가 구입한 비행기 표를 들고 혼자 김포로 향했다. 만일을 대비해 나는 공항까지 전송을 하지도 못했다.

그녀가 떠난 직후, 이번에 나는 집안 식구 아닌 누군가가 나를 연행하러 올 것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에서 보냈다. 그러나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하던 논문의 재구성이 다 끝났고 김희진이 남기고 간 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을 때까지 내 누추한 거처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었다. 김희진은 무사하게 떠났음에 틀림없었다. 봄이 오는 기색이 완연했건만 내 마음의 계절은 여전히 끝도 없는 겨울이었다. 햇볕이 짧은 이 동네의 눈사람은 여전히 녹지 않고 비탈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일이 있은 후 딱 한 번 발신인도, 주소도 적히지 않은 엽서 한 장이 도착했을 뿐이었다.

“강 양, 고맙소.”

그것이 내용의 전부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안의 검거에 대한 제법 큰 기사를 읽었고 뒤늦게 나의 익명의 동료들의 활동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해석의 기사를 읽었다.

나는 늘 그 시기에 대한 짧은 보고서 형식의 글을 쓰고 싶어 했다. “아, 그 길고도 긴 길의 우울한 초겨울 풍경이라니! 사방은 술병 바닥 두꺼운 유리의 질은 색깔처럼 흐렸지만 나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만났다……” 이렇게 시작되는 글을. 나는 여전히 우리의 사고가 활자화되는 것을 신성시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내게는 그 시기를 분명하게 회상해 써낼 만한 글재주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삶은 애기 될 만한 흔적이 없다. 안이 일할 때면 가끔 틀어 놓던 그 높낮이도 없고 비슷비슷하게 연결되어 하오의 잠 같기도 한 음악의 소절 같은 나의 삶에 대해 그 누가 관심을 가질 것인가. 당치도 않은 일이다.

김희진은 내게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취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나 또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울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대학을 아주 포기하고 이모에게로 내려가 이모의 농사를 오랫동안 도왔다. 그러면서 내가 맞본 희망의 색깔을 주변과 나누려고 여러 가지 일을 벌이기도 했다. 그 후의 나의 삶도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그사이 안은 유명한 민중 예술가이자 운동가가 되어 여러 지면을 통해 그의 견해를 기탄없이 발표하고 있었고 내가 살고 있는 시골에서 멀지 않은 도시에 도 수차 강연을 온 적이 있었다. 벌써 몇 년 전, 나는 한 번 강연 즈음에 맞추어 그 도시에 간 적이 있었다. 주최자 측에 가방 하나를 안에 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마을의 젊은이들에게는 강연에 참석할 것을 극구 권했으면서도 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시골로 돌아왔다. 그 가방 속에는 김희진이 남기고 간 글과 그럭저럭 재구성한 이후 한 번도 다시 읽어 보지 않은 우리가 같이 일하던 논문들의 묶음이 들어 있었다. 후에 어떤 잡지에 그 글의 일부가 실린 것도 보았다.

이제 내 수중에는 그 시기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물증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불안과 고립의 시간과 싸우기 위해 나 혼자 하던 이탈리아 사학가의 독일어본 역사책의 한글 번역의 미완성의 원고. 그러나 이제는 너무 오래 버려두어서 원고지의 색깔은 노랗게 변했거니와 그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 나보다 나은 전문 번역가에 의해 이미 출판되었을 터였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

나는 그 이후로 딱 한 번 한 남자를 사랑했다. 그렇지만 그는 나의 친구와 결혼해 버렸고 내가 그의 입장이었다고 해도 나보다는 내 친구를 선택했을 것이다. 몇 년 전에 나는 무슨 일 때문인지 학교를 그만두고 필생의 저술을 집필하기 위해 내가 사는 시골로 낙향했다는 한 교수를 만났다. 그는 언어학자였는데 ‘우리 시대의 언어 사회학 강의’라는 제목의 저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를 대신해 자료도 찾고 원고도 정리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기에 내가 자청해서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후 나는 그의 조수로 일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를 대신해 서울의 도서관으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올라간다. 그렇지만 나는 그의 저서가 언젠가 빛을 볼지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노교수의 방대한 사고는 매주 계획이 확대되지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시골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역 쪽으로 걸었다. 어쩌면 이 계절의 하늘은 이토록 무연히 맑을까. 그리고 그 시절의 아픔은 어쩌면 이리도 생생할까. 아픔은 늙을 줄을 모른다. 아픔을 치유해 줄 무언가에 대한 기구가 그만큼 생생하고 질기기 때문일까. 이번 겨울에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 비어 있는 들판에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어 볼까. 며칠 전에 지구를 뜬 그녀의 별에 전파가 닿게끔 머리에는 긴 가지로 안테나도 꽂고…… 그러나 사람이 죽은 다음에 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아프게 사라진 모든 사람은 그를 알던 이들의 마음에 상처와도 같은 작은 빛을 남긴다.

- 최윤, 「회색 눈사람」 -

20.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회고적 어조로 인물의 쓸쓸한 내면 풍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사건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통해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④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하고 있다.

2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외국으로 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김희진에 대해 아파하고 있다.
- ② ‘나’는 자신이 연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이 검거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 ③ ‘나’는 지하 조직에서 일했던 시기를 기록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 ④ ‘나’는 서울을 떠나 시골에 내려와 이모의 농사를 도우며 살았다.
- ⑤ ‘나’는 노교수의 작업을 돕는 일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역사와 사회를 거시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시 담론과 달리 미시 담론에서는 거시적 현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작은 공동체나 개인에 주목한다. 미시 담론에서는 거시 담론에서는 담아내지 못한 개개인의 삶을 다루면서 그 안에 담긴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찾으려 한다. 이는 역사와 사회에서 배제되어 왔던 개개인과 그들의 행위 혹은 그에 얽힌 사건에 주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회색 눈사람」은 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숨겨진 개인의 삶과 내밀한 정서를 섬세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① ‘나’가 김희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녀를 추억하는 것은 역사에서 배제된 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한 개인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군.
- ② ‘안’은 검거되어 신문에 기사로 실린 반면, ‘나’는 연행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통해 ‘안’과 달리 ‘나’의 삶은 역사나 사회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김희진이 남기고 간 글과 재구성된 논문들의 일부가 유명한 민중 예술가이자 운동가가 된 ‘안’에 의해 잡지에 실렸다는 것은 김희진의 존재와 그녀의 노력이 감춰져 왔음을 뜻하는군.
- ④ ‘나’가 도피 중이던 ‘안’과 만나지 못했던 것이나, 강연을 하러 자신이 살고 있던 곳 근처 도시를 찾은 ‘안’과 만나지 않았던 것은 남들로부터 자신의 삶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나’가 ‘안’, 김희진과 함께했던 시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증명할 수 없게 된 것을 통해 ‘나’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살아간 수많은 사람에 포함된 존재임을 알 수 있군.

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희진의 부고 기사로 환기된 나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꼬리를 무는 물음과 추측을 통해 ‘나’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③ ‘눈사람’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나’의 아픔을 다독이고자 하고 있다.
- ④ ‘별’을 통해 김희진과의 인연을 부정하려 했던 ‘나’의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작은 빛’을 통해 이름 없이 죽어 간 김희진에 의해 촉발된 ‘나’의 아픔을 나타내고 있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법은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여기에서 권리란 생활상의 이익을 누릴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이고, 의무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위이다.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등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법률관계를 맺을 때 온전히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각 개인은 모두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을 자유로이 지배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 상대, 계약 내용, 계약 방식 등을 정해 타인과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원칙은 ‘개인은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사고방식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각 개인은 이해득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개인이 법률관계를 맺는 활동에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사법상의 권리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제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법 제2조 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제시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 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제시해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히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과실 책임의 원칙은 누군가 정신적 또는 물질적 고통을 받았다 해도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관계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意思)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도 그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충분한 주의만 하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맺고 자유 경쟁을 통해 사회생활을 영위하려면 개인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주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불법 행위의 요건으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한다고 책임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그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20세기에 들어 산업의 발전에 따른 위험이나 공해 등과 같은 피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손해 발생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과실 책임의 원칙에 의하면, 공장 등에서 유해한 폐수나 가스가 방출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면 무과실이 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무과실 책임주의는 이와 같이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이 가진 재산에 대해 어느 누구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유권이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을 최대한 존중해 국가나 타인이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책임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화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를 인정하고 그것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소유권의 절대성이 타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에는 소유권에 부분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사유 재산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이 때문이다.

민법의 세 기본 원리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필요하다.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없으면 사적 자치의 원칙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소유권 보장은 각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24.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법의 기본 원리를 병렬적으로 설명한 후 기본 원리들 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② 민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상반된 주장을 대조한 후 두 주장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
 ③ 민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용을 통해 강조한 후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④ 민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뒷받침하고 있다.
 ⑤ 민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개념을 정의한 후 민법의 특성을 유형화해 요소별로 분석하고 있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B는 공장을 지었는데, 어느 날 A로부터 A의 토지를 4.6평 정도 침범해 공장을 지었다는 통고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B가 침범한 부분의 철거를 B에게 요구했다. 이에 B는 문제가 된 토지를 시가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겠다고 하였는데, A는 자꾸 가격을 올리며 매수 교섭에 불응했다. 그러면서 A는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전체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한편으로 B의 공장 건물의 부분 철거를 계속해서 요구했다. 이 일은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A가 B의 공장 건물의 부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B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 ① A가 B에게 자신의 땅에 지어진 공장 건물의 부분 철거를 요구한 것은 자신의 땅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② B가 A의 토지를 일부 침범해 공장을 지은 것이 만일 B의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B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군.
 ③ B가 A의 땅을 침범해 공장 건물을 지은 것은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겠군.
 ④ A가 B에게 공장 건물의 부분 철거를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A의 권리 행사가 B에게 과도한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르면, B가 자신의 공장 건물이 침범한 A의 땅을 시가의 5배 금액으로 매수하겠다고 계약 내용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국가나 타인이 간섭할 수 없겠군.

2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따라 계약 상대, 계약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은 ㉡의 적용을 어렵게 만든다.
 ② ㉠, ㉢은 개인이 이해득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존재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법은 ㉠에 근거해 제정된 것이다.
 ④ ㉠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효력을 발휘하는 데에 ㉡, ㉢이 필요하다.
 ⑤ ㉡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적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 때문이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드론은 인간 조종사가 타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비행체 자체의 자율 조종 모드로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항공기를 일컫는다. 드론은 정교한 센서를 갖고 있어서 자신의 상태와 주위 비행 환경을 인식해 자율 비행을 위한 기본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으며, 무선 통신으로 받은 명령과 센서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비행체를 정밀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다. 최근 제작된 드론은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지상과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자동 이착륙도 가능하다.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드론은 응급 환자 이송, 산악에서의 인명 구조, 상품의 배송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나) 드론 중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회전익기’이다. 회전익기는 일반적인 비행기처럼 고정된 날개와 추진력으로 양력을 얻어 비행하지 않고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라고 불리는 로터를 이용해 비행하는 것으로,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아 공간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 회전익기는 제자리에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자리에서의 비행도 가능하다. 회전익기의 핵심 장치는 로터이다. 회전익기는 로터를 회전해 양력을 발생시킨다. 로터는 여러 개의 블레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블레이드는 주동력 장치인 엔진이나 모터 등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으로 회전한다.

(다) 회전익기는 로터 회전면에 기울기를 만든 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양력을 기울여 운동 방향으로 전진하는 힘인 추력을 만들어 나아간다. 이는 드론이 상승하고자 하는 힘을 기울여 전진 방향과 상승 방향으로 쪼개어 쓰는 것이다. 엔진의 힘을 직접 추력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회전익기는 연료 소모가 많으며 체공 가능 시간이 적다. 그리고 회전익기는 회전하고 있는 로터의 회전면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로터 아랫부분에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

(라) 회전익기는 블레이드의 개수와 형태에 따라 구분되는데, 보통 단일 로터 드론과 멀티 로터 드론으로 구분된다. 단일 로터 드론은 일반적인 헬리콥터 형태로 하나의 메인 로터가 동력 장치의 회전력을 받아 회전하면서 양력을 발생시켜 상승한다. 단일 로터 드론은 꼬리 부분에 테일 로터라고 불리는 작은 로터를 갖고 있다. 메인 로터가 회전하면 드론의 몸체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로터가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힘을 받는다. 테일 로터는 이 힘을 상쇄해 메인 로터에 의해 드론의 몸체가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마) 멀티 로터 드론은 로터가 3개인 트리 로터 드론, 4개인 쿼드 로터 드론, 6개인 헥사 로터 드론, 8개인 옥타 로터 드론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근래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쿼드 로터 드론이다. 쿼드 로터 드론은 단일 로터 방식보다 비행 원리가 더 단순하다. 4개의 로터는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쌍끼리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한 쌍의 로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다른 쌍의 로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식이다. 그래서 쿼드 로터 드론은 단일 로터 드론처럼 테일 로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4개의 로터를 모두 동일한 속도로 고속 회전하면 제자리에서 상승하고 저속 회전하면 제자리에서 하강하며,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로터의 속도를 줄이면 해당 방향으로 기체가 기울어지면서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쿼드 로터 드론은 몸체의 회전이 가능한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로터의 속도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로터보다 줄이면 시계 방향으로 몸체가 회전하게 된다. 이처럼 쿼드 로터 드론은 각 로터의 속도 제어만으로 방향 전환이 가능해 단일 로터 드론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단순하다. 그리고 기체 자체를 제어하기가 쉬워 다양한 용도로의 사용이 기대되고 있다.

2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드론의 특징과 활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회전익기의 장점과 핵심 장치인 로터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다): 회전익기가 추력을 만드는 방법과 그에 따른 회전익기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라): 단일 로터와 멀티 로터 간의 기술적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멀티 로터 드론 중 쿼드 로터 드론에 주목해 그것의 비행 원리와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28. 윗글과 <보기>를 토대로 ‘회전익기’와 ‘고정익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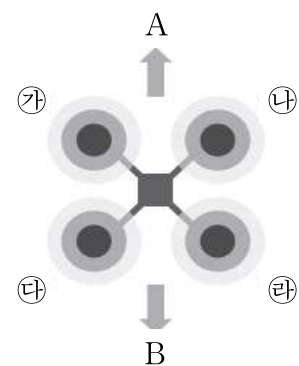
<보 기>

드론 중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고정익기’라고 한다. 고정익기는 제자리에서의 상승·하강과 제자리에서의 비행이 불가능하며 비행하거나 착륙을 하려면 활주로가 필요하다. 고정익기는 엔진의 힘을 추력으로 직접 전환하기 때문에 회전익기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연료 소모가 적어 오랜 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 ① ‘고정익기’는 ‘회전익기’에 비해 연료 소모가 적고 체공 가능 시간이 길다.
- ② ‘고정익기’는 ‘회전익기’와 달리 엔진의 힘을 직접적으로 추력으로 전환한다.
- ③ ‘회전익기’는 ‘고정익기’에 비해 목적지까지 빨리 비행해야 할 때 활용도가 더 높다.
- ④ ‘회전익기’는 ‘고정익기’와 달리 여러 개의 블레이드가 회전해 양력을 발생시킨다.
- ⑤ ‘회전익기’는 ‘고정익기’와 달리 로터와 로터의 회전면을 기울이기 위한 장치가 있다.

29.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위의 그림은 드론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이며, ㉓~㉖는 로터임.

- ① ㉓, ㉔의 회전 속도를 줄이면서 ㉕, ㉖의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해 단일 로터에 있는 ‘테일 로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 ② ㉓~㉖를 모두 강하게 동일한 속도로 고속 회전시키면 드론은 제자리에서 상승하고 저속 회전시키면 제자리에서 하강한다.
- ③ ㉓와 ㉕, ㉔와 ㉖가 짝을 이루어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두 짝의 회전 방향은 상반된다.
- ④ ㉓, ㉔의 회전 속도를 동일하게 ㉕, ㉖보다 줄이면 ㉓, ㉔의 로터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드론의 몸체가 회전한다.
- ⑤ ㉓, ㉔의 회전 속도를 동일하게 줄이면 A 방향으로 전진하고, ㉕, ㉖의 회전 속도를 동일하게 줄이면 B 방향으로 전진한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물질이 있다. 이들 물질은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원소는 한 종류의 원자로만 구성된 순물질을 일컫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와 원자의 종류는 동일하다. 원자의 종류는 원자핵에 들어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로 구별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더한 것은 그 원자의 질량수가 되며, 양성자 수는 그대로 원자 번호가 된다. 현재까지 지구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소로는 철, 염소, 리튬, 우라늄 등의 98가지가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지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소들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지구의 원소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원소로 바뀌고 있다.

수소보다 무거운 모든 원자의 핵에는 양성자 외에 중성자가 들어 있다. 양성자는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중성자와 달리, 양성자들은 같은 전하를 띠므로 전기적인 반발력이 상호 간에 작용한다. 그러나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소립자들은 짧은 거리에서 서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핵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뭉친다. 그런데 핵력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하므로 양성자 수가 많아 핵의 크기가 크면 핵력이 잘 미치지 않게 되고 전기적인 반발력의 효과가 커져서 핵이 불안정해진다. 그렇다면 원자 번호가 크면 원자핵은 불안정한 것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원자 번호가 커도 원자핵이 안정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많기 때문이다. 중성자는 핵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성자는 질량이 양성자와 전자를 합한 것보다도 크다. 그에 따라 원소는 중성자의 수가 많을수록 무거워진다.

중성자 수는 동일한 원소라도 다를 수 있다. ‘헬륨-3’에서 3이라는 숫자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1개를 말한다. 대부분의 헬륨은 ‘헬륨-4’로 중성자가 2개 존재한다. 이처럼 같은 원소라도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부른다. 각 원소에는 중성자 수가 다른 동위 원소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중성자가 불안정한 입자로 자유 공간으로 나오면 양성자와 전자로 붕괴한다. 이러한 현상은 핵 안에서 일어나는데,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붕괴되면 원소도 바뀐다. 예를 들어, 탄소 동위 원소인 ‘탄소-14’는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붕괴되면 ‘질소-14’로 바뀐다. 원자핵은 다른 입자와의 충돌로 원자 번호, 질량수 등이 다른 별개의 원소의 원자핵으로 변환되기도 한다. 이때 핵 안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핵자*인 양성자나 중성자가 원자에서 튀어나오기도 한다. 이는 핵붕괴 현상에 해당한다. 핵붕괴는 핵융합과 달리 무거운 원소가 가벼운 원소로 바뀌는 현상이다. 핵붕괴가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입자나 전자기파가 방출되며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뀐다. 이와 같은 변화에 의해 특정 원소의 원자 수가 원래 수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반감기는 원소에 따라 고유한 값을 지니며, 주위의 물리적·화학적 조건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원소의 핵붕괴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지만, 우라늄, 토륨 등과 같이 핵붕괴가 일어나는 물질이 지구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붕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지각에는 우라늄이 은보다 40배나 많으며, 토륨은 우라늄보다 수배나 많다. 핵이 붕괴하면 방사선이 나오는데, 방사선으로 나오는 입자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방사선의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어 지구 내부를 데우고 있다. 지구의 맨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열은 방사선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우라늄의 반감기가 45억 년인 것을 고려하면, 지구 생성 초기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 핵붕괴가 활발했을 것이고, 열도 훨씬 더 많이 났을 것이다.

*핵자: 원자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여기에 속함.

3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핵붕괴가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② 원소를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핵붕괴 현상이 달라지는 양상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지구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형성되어 저장된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지구의 원소들이 다른 원소로 바뀌는 현상의 원리와 관련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핵붕괴가 일어난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핵붕괴의 일반적인 원인을 도출하고 있다.

31.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원소의 동위 원소들은 모두 동일한 개수의 양성자를 갖고 있다.
- ② 지구 생성 초기에는 지구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양이 지금보다 많았다.
- ③ 원자핵이 다른 입자와 충돌하면 원자에서 핵자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 ④ 지구 내부에서 핵붕괴가 많아지면 지구의 맨틀에서 발생하는 열이 감소한다.
- ⑤ 핵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양성자끼리 접하면 상호 간에 반발력이 작용한다.

3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자의 질량수나 원자 번호가 변화하는 핵붕괴에는 알파(α) 붕괴와 베타(β) 붕괴가 있다. 알파 붕괴는 알파 입자를 방출하고 보다 안정된 원소가 되는 과정을 말한다. 알파 붕괴의 예로는 양성자 수는 88이고 질량수는 226인 라듐이 양성자 수가 86이고 질량수는 222인 라돈으로 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때 ‘헬륨-4’의 원자핵과 구성 요소가 같은 알파 입자가 방출된다. 베타 붕괴는 전자를 방출하고 안정된 원소가 되는 과정을 말한다. 베타 붕괴의 예로는 양성자 수는 53이고 질량수는 131인 아이오딘이 양성자 수는 54, 질량수는 131인 제논으로 바뀌는 것을 들 수 있다.

- ① 알파 붕괴로 라듐이 라돈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알파 입자는 ‘헬륨-3’과 원자핵의 양성자 수가 동일하겠군.
- ② 아이오딘에 비해 원자 번호가 큰 라듐의 중성자 수가 많기 때문에 라듐이 아이오딘에 비해 원자핵이 더 안정된 상태이겠군.
- ③ 라듐에 비해 라돈의 중성자 수가 두 개 적은 것은 핵붕괴에 의해 무거운 원소가 가벼운 원소로 바뀌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알파 붕괴는 알파 입자를 방출하고 베타 붕괴는 전자를 방출하므로 라돈과 달리 제논은 중성자들의 질량이 양성자들의 질량보다 작겠군.
- ⑤ 베타 붕괴로 아이오딘이 제논으로 바뀔 때 질량수는 그대로이고 양성자 수만 하나 늘어나는 것은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붕괴되기 때문이겠군.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에 숲속에 살아갈지어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인아.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 신동엽, 「산에 언덕에」 -

(나)

어느 해 **봄날**이던가, 밖에서는
살구꽃 그림자에 뿌여니 흙바람이 끼고
나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서 **고별**을 앓았다.
문을 열면 도진다 하여 손가락에 침을 발라 가며
장지문에 구멍을 뚫어

토방 아래 고깔 쓴 **여승(女僧)**이 서서 염불 외는 것을 내다보았다
그 고랑이 깊은 음식과 설움에 진 눈동자 창백한 얼굴
나는 처음 황홀했던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순 없지만
우리 집 처마 끝에 걸린 그 **수그린 낫달의 포름한 향내**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무 **애지고 막막**하여져서 사립을 벗어나
먼발치로 바릿대를 든 여승의 뒤를 따라 돌며
동구 밖까지 나섰다
여승은 네거리 큰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뒤돌아보고
우는 듯 웃는 듯 얼굴상을 지었다
(도련님, 소승(小僧)에겐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이젠
바람이 참사운데 그만 들어가 보셔압지요.)
나는 무엇을 잘못하여 들킨 사람처럼 마주 서서 합장을 하고
오던 길로 뒤돌아 뛰어오며 열에 흐들히 젖은 **얼굴**에
마구 흙바람이 일고 있음을 알았다.

그 뒤로 나는 여승이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따금 꿈속에선
지금도 머뭇있 이슬을 털며 산길을 내려오는
여승을 만나곤 한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 **모든 사물(事物)** 앞에서 내 가슴이 그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넘쳐흐르기를 기도하며
시(詩)를 쓴다.

- 송수권, 「여승」 -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반복과 변주를 통해, (나)는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가)는 대조적 소재를 열거하여, (나)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종결 어미를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속성을 대조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민족주의는 민족 구성원이 민족의 생활이나 열망, 터전과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민족주의 시인으로 알려진 신동엽은 「산에 언덕에」를 통해 이 땅에서 삶을 살다 간 이들이 이 땅에 귀속된다는 인식을 잘 보여 준다. 시인이 귀속감을 느끼는 민족의 영역은 이 땅 전체를 포괄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는 민족 구성원은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이를 포괄한다. 그는 이 땅에 귀속되어 살아 있는 선인들을 예민하게 감지하면서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있다.

- ① ‘다시 찾을 수 없’는 ‘얼굴’과 ‘다시 들을 수 없’는 ‘노래’를 통해 이 땅에서 삶을 살다 간 이들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화사한 그의 꽃’이 ‘산에 언덕에’ 피어나고, ‘맑은 그 숨결’이 ‘들에 숲속에’ 살아가리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이 땅에 귀속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인’에게 말을 건네면서 ‘울고 간 그의 영혼’의 열망이 좌절된 데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의 연쇄적 표현을 통해 화자는 ‘행인’에게 ‘그’의 부재로 인한 허전함을 채우라고 권유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예민하게 ‘그’의 존재를 느끼면서 ‘그리운 그의 모습’이 다른 형상으로 이 땅에 존재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35. (나)의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봄날’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고별’을 앓았던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며 시상을 출발하고 있다.
- ② [B]: ‘여승’을 흠쳐보던 화자는 ‘여승’에게서 ‘수그린 낫달의 포름한 향내’로 환기되는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 ③ [C]: 화자는 ‘애지고 막막’한 격정에 휩싸여 ‘여승’을 쫓게 되지만, ‘여승’의 말과 표정에 열띤 ‘얼굴’을 한 채 발걸음을 되돌리고 있다.
- ④ [D]: 후일 ‘여승’이 ‘먼 절간 속에’ 사는 존재임을 알게 된 화자는 ‘여승’과 같은 존재를 앞으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⑤ [E]: 과거 ‘여승’을 향했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 ‘모든 사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어 화자의 ‘시’가 지향할 바를 보여주고 있다.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낮잠을 자다 꿈속에서 죽은 남편을 만난 노모는 아들에게 저승 갈 준비를 해야겠다며 곳을 해 달라고 조른다. 무당 석출이 와서 굿판이 벌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명 나게 놀던 중, 노모는 죽음을 맞이한다. 온 집안이 장례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저승사자들이 나타난다.

만상주: (문상객 1을 가리키며) 너 저놈하고 짜고 집 팔아넘기려 했지?
둘째 상주: 이런 빌어먹을, 와 그리 머리통이 안 돌아가요? 상속세가 엄청난데 어떻게 하오? 그것도 겨우 사망 날짜 이틀 전으로 매매 계약서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했…….
만상주: 에라, 이 후레자식아! (박치기) / **둘째 상주:** 아이, 코야!
만상주: (둘째 상주 먹살을 잡고) 말해! 누구 작품이야?
둘째 상주: 그거 나 혼자 한 거 아니오. 형수한테 결재 받았소.
만상주: (사이) 세상 다 살았다. (벌떡 일어서며) 줄초상이다 -.

만상주 달려가 처의 허리를 잡고 넘어진다. “아이고 사람 잡네!” 느린, 처의 비명을 신호로 저승사자들과 둘째 아들을 제외한 무대 위의 모든 사람들 사이의 일대 활극이 슬로비디오로 펼쳐진다. 이때 한쪽에선 사인펜으로 ‘100,000원’이라고 쓰인 지전을 둘째 상주 코앞에 들이치는 사자 3.

둘째 상주: 이거 뭐꼬? / **사자 3:** 백지 수표라며? 우리 큰성님이 현금으로 바꿔 오래.
둘째 상주: 내가 은행이나? / **석출:** 빨랑 바꿔 주시오. 잘못 건드리면 개판 되오.
둘째 상주: 이거 순 날강도 아냐? / **사자 1:** (먼 산 불 보듯) 저네들 왜 저래?
사자 2: 인간 세상 개판이군. (기어 오는 사자 3을 보고) 넌 왜 그 모양이야?
사자 3: 인간 싸움에 사자 등 터졌소. 옛수! 현금 바꿔 왔소.
사자 2: 진작 그럴 것이지. 제법 신사적으로 노는군. 성님, 피리가 수금해 왔소.
사자 1: 가만있거라. 잘못하면 계획에 없는 저승길 동행 생기겠다. (만상주를 가리키며) 저네들 왜 저래?
사자 3: (둘째 상주를 가리키며) 저놈이 나쁜 놈이오! 죽은 할머니를 산 것처럼 속여서 가옥 토지 매매 계약서를 꾸몄답니다.
사자 1: 그래? (사자 2를 돌아보며) 그거 저승법 몇 조에 해당되냐?
사자 2: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 부분 제16장 4절에 해당되는 사문서 위조요. / **사자 1:** 확실하나?
사자 2: 분명하오! / **사자 1:** 출동! / **사자 1, 2:** 출동! 출동! / 처: 까악! (혼절)

노모, 관 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난다. 통통 뛰어서, 육신각신하는 만상주, 둘째 상주한테 가서 뺨을 때린다. “엄마다!” 하고 놀라는 만상주, 둘째 상주, 나머지는 “할매다!” 하며 놀란다.

사자 2: (관에서 뛰어나온 노모에게) 여노는 무슨 애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반칙을 범하고 계시오?

[A] 노모 손가락질로 다가오라는 시늉. 사자 2, 노모에게 다가가 귀를 댄다. 알았다는 듯 끄덕거리는 시늉. 사자 2, 뚜벅뚜벅 걸어와 둘째 상주 먹살을 잡아 든다. 번쩍 들리는 둘째 상주.

둘째 상주: 살려 줘! / **사자 2:** 안 되겠다. 어머니가 너하고 동행해야 되겠다.
둘째 상주: 아이고, 나는 상주지 저승 갈 사람이 아니오.
사자 1: 야, 이 후레자식아! 저승이 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여행 취소하는 온천장인 줄 알아?
석출: 어떻게 편리 좀 봐줄 수 없겠소?
사자 1: 무슨 편리?

석출, 사자 1에게 다가가 귀엣말. 사자 1, 눈을 깜빡이며 의미심장한 미소. 그리고 사자 2에게 놓아주라는 눈짓. 털썩 떨어지는 둘째 상주. 석출, 둘째 상주에게 다가가 귀엣말 “게워 내!” 둘째 상주, 강력한 저항. 석출, 알아

[B] 서 하라는……. 둘째 상주, 말없이 일어서 관으로 다가가 꿇어앉으며 애교 있게 “엄마아!” 노모, 뺨부터 철썩 올려붙인다. 둘째 상주, 옷 속에 꽂쳐 둔 부조금을 하나둘 끄집어내어 관 속에 넣으며, 애고애고 돈 잃어 원통한 곡. 둘째 상주 일어서려는데, 노모, 어깨를 짊어 꿇어앉힌다. 노모의 수화(마임) -.

사자 2: (통역) 내 통장 내놔!

둘째 상주, 더욱 서러운 곡 놓으며 통장과 인감도장을 관 속에 집어넣는다. 노모의 강력한 수화(마임)-.

사자 2: (통역) 집문서도!
만상주: 아이고, 집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입니까? 어머니가 떡장사해서 뼈 빠지게 세운 우리 가문의 터전인데…….
 노모의 수화(마임)-.

사자 2: (통역) 집은 팔고 사는 부동산이 아니다. 요새 인간들이 가옥과 토지를 무슨 증권 거래하듯이 굴리는데, 이거, 안 좋아요! 집은 그냥 집이야, 방구들에 늘어붙어 편하게 살자고 세우는 게 집이지 돈 놓고 돈 먹는 뽕뽕이 판이 아니잖아! 알겠냐! 내가 떡장사해서 집 샀을 때, 너희들 부동산 투기하라고 헛지랄했냐? 새 새끼 등지 틀 듯 자손이 이어지고, 종손이 집 지키고, 제삿밥 꼬박꼬박 얻어먹을 생각으로 집 세웠지. 너희들이 집 팔고 아파트로 이사해 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 찾아가냐? 서울 교통이 지옥인데 낯선 길 찾기 어렵고, 아파트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되고, 이 나이에 그 높은 계단 걸어서 올라갈 군번이나, 내가!
석출: 요새 아파트 엘리베이터 다 있어요. 복레 할머니.

노모, 짜증스러운 수화(마임)-.

사자 2: 혼백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봐라. 쥐도 새도 모르게 구천 중음신 신세로 떨어진다. (둘째 상주에게) 빨리 집문서 내놔라!

둘째 상주, 하이고 자지러지며 집문서를 관 속에 던진다. 만상주와 처도 기절할 듯 곡소리-. 노모, 관 속을 더듬어 다발을 꺼내어 확 뿌리며 이별의 수화(마임)-.

사자 2: 자, 용돈이다. 닭 울기 전까지 신나게 화투판이나 벌여 봐라, 탁아, 나 진짜 간다!

노모의 활짝 편 팔 신나게 흔들며, 뿌러지는 돈. 돈 주우려고 아귀다툼하는 상주들. 무대 불 꺼진다.

- 이윤택, 「오구 - 죽음의 형식」 -

3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상주는 자신의 처와 동생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분개하고 있다.
 ② 저승사자들은 사람들이 서로 엉겨서 싸우는 이유를 묻고 답하고 있다.
 ③ 석출은 둘째 상주에게 저승사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④ 노모는 만상주의 간곡한 요청을 뿌리치기 위해 사자 2를 통해 자기 생각을 밝히고 있다.
 ⑤ 노모가 다시 관 속으로 들어가자 상주들과 그 가족은 극도로 슬퍼하고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오구 - 죽음의 형식」은 사자(死者)를 보내는 오구굿과 장례 절차를 연극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굿이나 장례에 내재한 신성한 측면을 보여 주기보다는, 세속화된 현세에서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상적인 삶의 행태들을 보여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작가는 저승사자와 석출, 상주들의 대화, 노모의 몸짓에 대한 저승사자들의 통역 등을 통해 이승과 저승이라는 분리된 시공간을 해체하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굿이나 장례식이 회화화되기도 하고, 인간 세계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드러나기도 한다.

- ① 노모의 장례 중 만상주와 들째 상주가 유산을 둘러싸고 갈등하면서 엄숙해야 할 초상집이 난장판이 되고 있군.
- ② 저승사자들이 들째 상주와 대화하고, 노모의 몸짓을 통역하는 장면을 통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군.
- ③ 사자 3이 들째 상주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세속적인 행태를 보여 주어 저승사자들을 인간처럼 욕망을 지닌 존재로 그려 내고 있군.
- ④ 노모가 자식인 들째 상주에게서 통장과 집문서를 빼앗는 장면을 제시하여 죽어서도 떨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있군.
- ⑤ 노모가 사자 2를 통해 집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내용에서는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인간 세계에 대한 풍자가 드러나 있군.

3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달리 [B]에는 인물 간의 갈등이 어디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제시되어 있다.
- ② [B]와 달리 [A]에는 특정 인물의 잘못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 구체화되어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대화보다 인물들의 행위를 위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물음에 대한 답변 내용을 감추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제삼자가 인물 간의 갈등에 개입하는 양상이 나타나 있다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랑도 그지없고 연분(緣分)도 깊을시고
이 사랑 이 연분을 비할 데도 전혀 없다
두 손목 마주 잡고 평생을 언약함이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나비 되어
청춘이 다하도록 떠나 살지 말자더니
㉠인간(人間)에 일이 많고 조물(造物)조차 셈하여
신정(新情)이 미흡하여 애달프게 이별이라
청강(淸江)에 떠 있는 **원앙** 울면서 떠나는 듯
광풍(狂風)에 놀란 **봉접(蜂蝶)*** 가다가 돌치는 듯
㉡석양은 재를 넘고 정마(征馬)는 자주 울 제
나삼(羅衫)*을 부여잡고 **암연(黯然)히*** 여원 후에
슬픈 노래 긴 한숨을 베풀 삼아 돌아오니
이제 소임(所任) 이어 생각하니 원수로다
간장이 다 썩으니 목숨인들 보전하랴
㉢일신(一身)에 병이 되니 만사(萬事)에 무심하여

서창(書窓)을 굳이 닫고 어색하게 누웠으니
화용월태(花容月態)*는 안중(眼中)에 아른거리고
분벽사창(粉壁紗窓)*은 침변(枕邊)*에 어렴풋하다
꽃떨기에 **이슬** 떨어지니 별루(別淚)를 뿌리는 듯
버들막에 **연기** 자욱하니 이별의 한을 머금은 듯
공산야월(空山夜月)의 **두견**이 슬피 울 제
슬프다 저 새 소리 내 말 같이 불여귀(不如歸)라
삼정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드니
상사(相思)하던 우리 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천수만한(千愁萬恨)* 못다 일러 일장호접(一場蝴蝶) 흩어지니
㉤아리따운 옥빈홍안(玉鬢紅顏)* 곁에 얼핏 앉아 있는 듯

어화 황홀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한숨짓고 바빠 일어나 바라보니

운산(雲山)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호월(皓月)*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활사

옛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 곁에 홀홀하여 **낙엽 지는 소리** 난다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때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보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찌 그리 못 보는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을 이런 곳을 일렀구나

산머리의 **편월(片月)** 되어 님의 낮에 비추고자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봉접: 벌과 나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나삼: 얇고 가벼운 비단으로 만든 적삼.

*암연히: 슬프고 침울하게.

*화용월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르는 말.

*분벽사창: 하얗게 꾸민 벽과 비단으로 바른 창이라는 뜻으로, 여자가 거처하며 아름답게 꾸민 방을 이르는 말.

*침변: 베갯머리.

*천수만한: 이것저것 슬퍼하고 원망함. 또는 그런 슬픔과 한.

*옥빈홍안: 옥 같은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젊은이를 이르는 말.

*호월: 매우 맑고 밝게 비치는 달.

*약수: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

길이가 3000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영탄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임과의 이별이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이별 후에 느끼는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잠에서 깨어난 후의 착시를 통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임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 시가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자연관을 바탕으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는 자연물을 통해 현실의 아픔을 노래하거나 현실을 넘어서려고 하거나 현실에서는 해소하지 못한 정한(情恨)을 위안하는 내용 등이 흔히 나타난다. 이는 오랜 시간을 거쳐 인간이 특정한 자연물에 부여한 관습적 의미들이 작가와 독자 일반에게 공유되었음을 의미하므로, 고전 시가를 읽을 때는 그와 같은 관습적 의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① ‘원앙’과 ‘봉접’ 등을 통해, 임과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꽃떨기’에 떨어진 ‘이슬’, ‘연기’가 자욱한 ‘벼들막’, 슬프게 우는 ‘두견’은 이별로 인해 해소되지 못한 화자의 정한을 심화하고 있군.
- ③ ‘운산’과 ‘약수’는 이별 후에 느끼는 임과 화자 사이의 거리감을 부각하는 반면, ‘호월’과 ‘편월’은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군.
- ④ ‘엇그제 꽃’은 임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시간을 환기하고, ‘낙엽 지는 소리’는 임과 헤어져 지내는 쓸쓸한 시간을 환기하고 있군.
- ⑤ ‘외기러기’를 통해 임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어 하나 그러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군.

[42~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국이나 조선의 유학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항상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본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점은 정약용도 마찬가지였다. 정약용도 인간의 본성을 규명하고 어떻게 해야 인간이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선택해 행할 수 있게 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정약용은 ‘성(性)’을 ‘마음의 기호(嗜好)’라고 했다. 기호란 글자 그대로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사람과 만물은 모두 각기 좋아하는 바를 추구함으로써 스스로를 변성시킨다. 벼는 물이 그득한 논에 심어야 잘 자라고, 채소는 거름을 듬뿍 준 밭에 있어야 속이 ㉠알차게 된다. 벼의 성은 물을 좋아하고, 채소의 성은 거름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각기 좋아하는 것을 얻어야 싹이 나고 무성하며 번창한다. 정약용은 인간이 선(善)을 좋아하고 악(惡)을 부끄럽게 여기는 성을 하늘로부터 선천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벼가 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은 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물이 그득한 논에서 벼가 잘 자라는 것처럼 인간이 선을 지향하며 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약용이 말한 성은 성리학에서 말한 고정되어 있는 내재적 본체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향, 즉 ‘선으로의 지향성’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선을 지향하는 성’이 있다고 해도 쉽게 선을 행하거나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도덕적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인간이 귀, 눈, 입, 몸 등을 통한 육체적, 감각적인 즐거움을 좋아하는 성인 ㉡‘형구(形軀)의 기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구의 기호에 따를 때 인간은 악을 지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약용에 따르면, 하늘은 인간에게 선을 즐겨워하고 덕을 좋아하며 악을 수치로 여기는 성도 함께 부여했다. 그것은 바로 ㉢‘영지(靈知)의 기호’이다. 영지의 기호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영지의 기호는 자신이 악을 저질렀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인간은 어떤 행위에 대해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면 호감을, 반대로 옳지 않은 것이면 혐오감을 선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성리학에서는 만물이 모두 본연의 선한 성을 갖고 있다고 하나 그것이 현실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성리학에서는 선이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근거를 사람과 사물이 지니고 있는 기질에서 찾는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근거를 사람과 사물의 기질에서 찾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기질이 선천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이미 주어진 기질 때문에 누구는 선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크고 누구는 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약용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어떤 기질 때문에 선과 악이 갈린다면, 선을 높이거나 악을 비난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기질이 사람을 지혜롭거나 우둔하게 할 수는 있어도, 선하거나 악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약용은 인간이 선하거나 악하게 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음악을 중시했다. 그에 따르면, 정(情)은 성(性)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쁨, 노함, 슬픔, 두려움, 사랑함, 미움, 욕심 등의 칠정(七情)이 항상 마음속에 뒤섞여 작용하는 까닭에 마음이 화락(和樂)*해지기 어렵다. 하지만 그는 음악이 마음을 화락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말한 음악은 감정에 치우친 익음(溺音)이 아니라, 도리에 부합하는 덕음(德音)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는 덕음으로 이루어진 음악을 통해 마음이 화락해지고 화락해진 마음에 의해 덕을 쌓게 되어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보다 잘 수행하게 된다고 여겼다. 그가 생활 속에서 한시라도 예와 함께 음악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음악을 멀리하면 인간이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되고 감정의 잘못된 발산이 결과적으로 많은 사회악을 초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성인의 도는 악(樂)이 아니면 시행되지 못하고 왕의 정치도 악이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며, 천하 만물의 감정도 악이 아니면 조화되지 못한다며 음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자신의 수양을 위해 음악으로 성정(性情)이 중화되도록 비범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음악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중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음악이 그 나라의 정신적 기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적인 실천적 음악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며, 일반 백성들도 신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어야 태평성대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백성들의 음악인 민속악을 천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인간이 선을 지향하는 성을 지니고 있으며 음악을 통해 선을 보다 뚜렷이 지향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태평성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기호로서의 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라도 선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하늘이 인간에게 자주권, 곧 자유 의지를 주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교육에 의해서만 수동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하게 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선택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하늘은 인간의 선택에 관여할 수 없다. 선을 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인간의 결단에 달려 있다. 인간은 주체성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화락: 화평하고 즐거움.

42. 윗글의 ‘정약용’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음악은 인간이 감정을 제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② 마음속 ‘정’은 ‘성’의 작용에 의해 음악으로 표출된다.
- ③ 선을 지향하는 ‘성’이 실현되면 태평성대가 실현될 수 있다.
- ④ 인간은 기호로서의 ‘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 ⑤ 음악은 성인이 도를 이루고 왕이 정치에 성공하는 데에 필요하다.

43. 밑글의 ‘정약용’과 <보기>의 ‘순자’의 견해를 비교해 그 차이점을 파악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순자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며, 어떠한 윤리적 지식이 나 믿음도 선천적으로는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순자는 인간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동기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동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도덕적 동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도덕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윤리적 지식이나 믿음을 갖게 하는 교육 없이는 인간에게서 어떤 도덕적 행위 동기도 유발되지 않는다.

- ① 순자와 달리, 정약용은 인간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② 순자와 달리, 정약용은 인간이 도덕적 행위 동기를 지닐 수 있는 핵심 요인을 인간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서 찾았다.
- ③ 순자와 달리, 정약용은 선이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근거를 선천적으로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는 기질에서 찾았다.
- ④ 순자와 달리, 정약용은 인간이 인위적인 도덕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주체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순자와 달리, 정약용은 만물이 본래부터 선한 본성을 갖고 세상에 나기 때문에 윤리적 지식과 믿음이 모두 필요 없다고 보았다.

44. 밑글을 바탕으로 ‘정약용’이 <보기>에 대해 할 말을 추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도둑질을 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A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도둑질을 할 집을 물색하려 다니다가 어느 날 가난하지만 강직한 신념을 갖고 약자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선비 B를 만나고 도둑질로 연명해 온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B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으며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B의 삶을 보고 A는 자신도 B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런데 그 다음 날 A는 이웃 동네의 부자가 최근 값비싼 옥을 사들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갖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날의 다짐과 옥을 갖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옥을 훔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 ① A가 이웃 동네 부자의 값비싼 옥을 갖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값비싼 물건을 좋아하는 기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② B가 A와 달리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은 것을 선천적으로 주어진 기질의 차이로 보지 않아야 B의 선을 높이고 A의 악(惡)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 ③ B가 가난함에도 약자를 도우며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 흠족함을 느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도덕적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 ④ A가 도둑질을 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삶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인간은 누구나 내면에 변하지 않는 내재적 본체로서의 선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⑤ A가 B를 만나고 것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후 이웃 동네 부자의 옥을 훔치지 않은 것은 도둑질에 대한 혐오감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판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45. [A]와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정약용’과 ‘플라톤’의 음악에 대한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플라톤은 음악이 어느 예술보다도 인간의 영혼과 도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예술들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플라톤에게 음악은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교육 수단이었다. 그에 따르면, 이상 국가의 수립을 위한 도덕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대상자들이 듣는 음악이 반드시 좋은 음악이어야 한다. 그는 감정을 모방해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나쁜 음악으로 여겼으며, 도덕적 교훈을 전달해 주는 음악을 좋은 음악으로 여겼다. 그는 좋은 음악을 통해 인간이 선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① 인간이 옳은 일을 지향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음악은 이상적 사회의 도래를 앞당겨 줄 수 있다.
- ② 모든 사람들이 신분 계층과 상관없이 다양한 성격의 음악을 누릴 수 있어야 인간이 선을 추구할 수 있다.
- ③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을 중시해야 다른 예술 갈래에 비해 음악이 점유하고 있는 우월한 지위를 지킬 수 있다.
- ④ 자주적인 음악 문화가 형성되어야 음악이 이상 국가의 수립을 위한 정신적 기틀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 ⑤ 생활 속에서 마음을 제어하는 수양이 이루어져야 음악이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 수단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46.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 사이의 대립하는 요소들을 줄여 줌으로써 ㉡의 성향이 강화되는 토대를 제공한다.
- ② ㉠은 ㉡을 근거로 하여 악한 행동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③ ㉠은 도덕적 가치 판단을 통해 ㉡에 의한 행위를 평가하는 준거로 기능한다.
- ④ ㉡은 ㉠과 달리 개인의 도덕적 행위를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 ⑤ ㉡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가 ㉠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을 줄여 준다.

47. <보기>는 ㉠의 단어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고할 때, ㉠과 단어 구조가 가장 유사한 것은?

—<보 기>—

㉠은 ‘알차다’의 활용형이다. ‘알차다’는 ‘주어+서술어’의 구조로 명사와 동사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이다.

- ① 검붉다 ② 낮설다 ③ 앞서다
- ④ 가로막다 ⑤ 거울삼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